

지역공동모금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이 영 철(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공교수)

I. 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998년 7월 민간비영리조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은 20여년간 관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연말 이웃돕기 운동”의 모금과 기금관리가 반자율적인 모금방법과 부적절한 기금사용의 문제점을 들어내어 사회적 거부감을 초래하였으므로 정부는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공동모금사업의 민간이양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의원입법되어 중앙 및 지역이 단일화된 조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출범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순수한 민간주도의 기관으로 독립되면서 민간의 자율적 사회복지참여를 촉진하고, 각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민간의 해결능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필요한 민간복지재원을 충원하기 위한 민간사회복지 자원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에 조사연구를 실시한 것이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공동모금회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기부문화 활동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이후의 모금 및 배분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조사·분석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관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 운용을 지향하고 순수한 민간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직접 모금·배분 및 평가 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모금회가 정착할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공동모금회의 합리적이며 실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와 지역공동모금회

현대복지사회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되 더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회복지 대상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이들의 문제가 복잡성을 띄어가고 욕구가 다양해질수록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중요성은 증대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민간사회복지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최일섭, 2001 : 414)

그러므로 지역공동모금운동의 기본적 이념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그 지역내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거나 그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 지역주민들의 능력에 따라 분담한다는 사회연대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영모, 2002 : 203)

또한 지역공동모금회는 시민들과 복지기관들의 협력 조직이다.(Stroup 1952 : 363) 라고 정의하고, 지역공동모금회는 시민들과 복지기관들의 협동조직이다. (Dunham 1970 : 464)고 정의하며, 공동모금회는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는데서부터 조직을 형성하여 예산을 확정하고, 모금활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활동을 통하여 걷혀진 공동기금을 배분하는 전반적 과정에 걸쳐 민주주의 철학과 원리에 바탕을 둔 시민참여와 활동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한 전문사회사업가들이 주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운배, 2002 : 262)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이념들을 종합해보면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봉사조직들을 원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며 '모두를 위한 한번의 기부'의 원리를 적용하여 자발적인 기금조성 노력들을 체계화하고 조정하며, 자원적인 기부금에 의해 원조를 받는 지역사회의 기금조성, 기획 및 기금 배분조직으로서 시민들과 복지기관들의 협동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공동모금회의 사회적기능과 관련요인들

기부문화조성에 관한 지역공동모금회의 선행연구는 류기형의 지역공동모금제에 관한 연구로서 국내 최초의 학위논문을 들 수 있고 (류기형, 1991) 그후 성민선의 '공동모금법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성민선외 1997), 강철희의 '한국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역사, 구조와 기능' (강철희, 2000) 그리고 한동우의 주요국 공동모금조직의 모금 및 배분활동연구 (한동우 2001), 이영철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활성화 방안' (이영철, 2000) 그 밖에 이론적인 선행연구들 (송정부, 김범수, 이태수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72년도에 이미 공동모금사업을 제도화하는 경험이 있지만 이후 지속되지 못하였으며, 비로서 1997년 3월에 사회복지공동법의 제정을 통해서 1999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대체됨으로써 민간에 의한 지역공동모금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모금활동은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개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운동으로 이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는 합리적인 기부금 모금을 통한 사회복지자금의 조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국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의 보급과 여론형성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지역공동모금회의 기능은 공동모금의 특성과 관련시켜 볼 때 합리적 기부금을 통한 지역복지자금조성, 국민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의 보급과 여론의 형성, 그리고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의 분석틀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활동이 일반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기존의 문헌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특히 전남도민들의 기부에 관련된 자료가 빈약하여 가능한 다양한 문항으로 이를 구성하였다.

본 설문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6개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는데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서 3문항, 둘째, 공동모금회에 대한 의식 및 인지도에 13개 문항, 셋째, 기부문화의 활동에 관련된 10개 문항, 넷째, 자원봉사에 5개문항, 다섯째, 모금분야에 5개문항, 여섯째, 배분분야에 7개문항, 일곱째, 평가분야에 6개문항등 총 55개 문항의 설문지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구분	분야별 내용 및 항목	문항
사회인구학적 특성	· 지역,대상,성별,연령,혼인여부 · 학력,종교,주거형태,직업,월평균소득 · 지역사회문제,지역사회 개입 여부	9
공동모금회의 인식	· 자율성 및 객관성,공정성 · 책임성 및 투명성,사업신청내용,중요한 역할 · 사업의 방향성,활성화 방안,운영 및 행정비용의 적정성	13
기부문화의 활동	· 기부활동의 인지도,참여경험,기부동기 · 기금사용의 희망분야 · 기부문화의 미활성화 이유,성금의 참여경로,세금공제혜택	10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 참여 여부,활동기회,활동영역 · 참여계획 · 주요동기,참여시간,참여횟수,참여하지 않는 이유	5
모금분야	· 기부의 필요성,적정모금액수,효과적 모금방법 · 기부의 참여차원	5
배분분야	· 배분기준,중점배분대상,배분지원분야 · 효율적 운영시스템 · 지정기탁,배분시 고려사항,미신고시설 지원 여부 · 시민단체 지원여부,효율적 배분 고려사항	7
평가분야	· 평가의견,평가활동,프로포절 평가 ·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 · 공동모금회의 활동평가,공동모금회 자체평가	6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전남지역의 기부문화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가꾸어 가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기부에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어 연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에도 기존 공동모금회의 다양한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공동모금회에 대한 의식조사는 물론 공동모금회의 모금·배분·평가분야에 이르기까지 향후 전남지역의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상황 및 기부활동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관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용을 지양하고 순수한 민간단체가

이웃돕기 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된 후의 3년간의 실적등을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의 참여와 의식 정도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능한 이웃돕기운동에 관심있는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1년 6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방법은 사회복지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회복지 관련 전문직 종사자로부터 270부를 배부하여 200부가 회수되었고(74.1%), 대상지역으로는 22개 시·군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받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440명에게 배부하여 309부(70.2%)가 회수되었고, 22개 시·군 지역 읍면동을 무작위 추출하여 해당지역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받아 민간인 중심(농어민, 이장, 주부등)으로 설문지 308부를 배부하여 263명(85.4%)이 응답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전남도내에 거주하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전문가, 도민 등 총 1,01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772명이 응답하여 75.8%의 높은 회수율을 나타냈다.

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수 현황

구분	설문지 배포수	설문지 회수	회수율	유효 설문지
사회복지세미나	270	200	74.1	199
시·군	440	309	70.2	306
읍·면·동	308	263	85.4	260
합계	1018	772	75.8	765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 PC+로 통계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포, 교차분석, 백분율과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고 관련요인들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IV. 조사결과분석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중 성별은 남자 413명(54%), 여자 348명(45.5%), 무응답 4명(0.5%)로 남자가 조금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35.4%, 40대 27.5%, 20대 22.0%, 50대 11.1%, 60대이상 4.2% 순으로 20-40대가 차지하는 연령분포가 84.0%로 응답자의 주류를 이루었다.

결혼형태는 기혼 71.0%, 미혼 26.1%, 기타 2.9%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 36.1%, 대졸 33.5%, 전문대졸 17.3%, 중졸이하 8.0%, 대학원이상 5.2%로 나타나 전문대졸 이상이 55.6%로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비교적 고학력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35.7% 전문직 15.0%, 기타 11.1%, 농어민 10.1%, 사무직 9.8%, 자영업 5.9%, 서비스 및 전업주부가 각각 4.7%, 학생 2.1%, 생산직 0.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지역인 전남은 농어촌지역이므로 농어민이 기부에 관심을 가졌다. 조사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 31.5%, 불교 15.0%, 천주교 13.1%, 기타종교 6.6% 순이었으나 33.1%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개인소득은 100-150만원 37.4%, 50-100만원 26.4%, 150-200만원 16.6%, 50만원 이하 12.4%, 200-300만원 5.1%, 300만원이상 2.5%순으로 나타났으며 50만원이하인 경우도 12.4%로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60.4%, 전세 23.7%, 기타12.2%, 월세 3.8%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읍단위의 소도시에서 거주가 34.2%, 농어촌 31.5%, 중소도시 23.4%, 대도시 10.8%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특성이 비교적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413	54.0
	여	348	45.5
연령	20대이하	4	0.5
	20대	168	22.0
	30대	264	34.5
	40대	210	27.5
	50대	85	11.1
	60대이상	32	4.2

변 수	구 분	빈 도	백분율
결혼형태	미혼	200	26.1
	기혼	543	71.0
	기타	22	2.9
학 력	중졸이하	61	8.0
	고졸	276	36.1
	전문대졸	132	17.3
	대졸	256	33.5
	대학원이상	40	5.2
직 업	전문직	115	15.0
	공무원	273	35.7
	사무직	75	9.8
	서비스직	36	4.7
	생산직	7	0.9
	자영업	45	5.9
	농어민	77	10.1
	전업주부	36	4.7
	학생	16	2.1
	기타	85	11.1
종 교	기독교	241	31.5
	천주교	100	13.5
	불교	115	15.0
	무종교	253	33.1
	기타	51	6.7
월평균소득	50만원이하	95	12.4
	50-100만원	199	26.4
	100-150만원	287	37.4
	150-200만원	127	16.6
	200-300만원	39	5.1
	300만원이상	19	2.5
주거형태	자가	462	60.4
	전세	181	23.7
	월세	29	3.8
	기타	93	12.2
거주지역	대도시(광역시)	83	10.8
	중소도시	179	23.4
	소도시(읍단위)	262	34.2
	농어촌	241	31.5

2. 공동모금회의에 대한 인식

1) 공동모금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인식

기존의 공동모금회가 “정부통제로부터 자율성을 가져야 할 다음질문에 조사응답자의 52.7%가 그렇다고, 매우그렇다인 경우가 29.2%로 나타나 대다수 82.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렇지만 15.9%는 그렇지 않다고 나타났다.

“지역단독법인 운영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그렇다의 경우가 69.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아니다의 경우도 26.2%를 나타내고 있다.

공동모금회에 대한 프로포절 신청사업 선정과정 및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74.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니다의 경우는 21.2%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자율성 및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 각각 82.3%, 69.3% 그리고 74.3%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의 부정적인 응답도 앞으로 보다 세밀한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공동모금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의 인식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무응답	합 계
정부통제로부터 자율성	223 (29.2)	403 (52.7)	122 (15.9)	13 (1.7)	4 (0.5)	765 (100.0)
지역단독법인 운영의 독립성	118 (15.4)	412 (53.9)	206 (26.9)	24 (3.1)	5 (0.7)	765 (100.0)
신청사업 선정과정 및 심사결과의 공정성	130 (17.0)	438 (57.3)	162 (21.2)	14 (0.8)	21 (2.7)	765 (100.0)

2) 어려운 이웃돕기에 대한 책임성

조사대상자들에 의한 “어려운 이웃돕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웃과 지역사회가 3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과 국가가 35.3%, 국가가 11.4%, 가족과 친척이 10.4% 그리고 개인이 4.1%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본다면 어려운 이웃 돕기에는 아직도 국가의 책임보다는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과 친척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모금회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이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어려운 이웃 돌보기에 대한 책임성

구분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개인	31	4.1	4.1
가족과 친척	79	10.4	14.5
이웃과 지역사회	294	38.6	53.1
국가	87	11.4	64.5
개인과 국가	270	35.3	100.0
합계	761	100.0	

3) 공동모금회 신청사업(프로포절) 내용

조사응답자들의 공동모금회 프로포절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지원사업분야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16.9%, 시설·기능보강사업 12.5%, 교육훈련프로그램 8.0% 시설운영지원사업 7.8%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7.5% 그 밖에 시민사회, 사회인프라구축사업이 1.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매년 해마다 공동모금회에 신청하는 1순위 프로포절은 아직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계비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사업 그리고 시설·기능보강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순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문제해결 프로그램이 23.7%로 가장 높고, 시설운영지원사업이 20.7%, 교육훈련 프로그램사업 19.5% 순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프로그램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공동모금회사업 신청 내용

구분	빈도	1순위	빈도	2순위
생계지원사업	140	38.8	16	4.7
시설운영 지원사업	28	7.8	70	20.7
시설·기능 보강사업	45	12.5	27	8.0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	27	7.5	80	23.7
심리 치료적 성격 프로그램	24	6.6	23	6.8
교육훈련 프로그램	29	8.8	66	19.5
사회통합 프로그램	61	16.9	43	12.7
시민사회, 사회인프라구축	7	1.9	8	2.4
기타	0	0	5	1.5
합계	361	100.0	338	100.0

4) 공동모금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조사대상자들의 공동모금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소득, 복지시설에 대한 생계비지원확대 역할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내고, 사회복지기관, 시설, 관련단체의 역할 강화와 서비스 지원역할이 23.7%,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 역할이 14.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체계적인 교육훈련역할실시 6.8% 또한 공동모금회의 정기적인 의견수렴 및 공청회 실시확대 4.9%을 찾아 볼 수 있다.

<표 7> 공동모금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구 분	빈 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사회복지기관, 시설, 관련단체의 연계 및 조정역할	105	14.0	14.0
사회복지기관, 시설, 관련단체등의 역할강화와 서비스지원역할	178	23.7	37.6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역할	167	22.2	59.8
저소득, 복지시설에 대한 생계비 지원등 확대역할	203	27.0	86.8
공동모금회 정기적 의견수렴 및 공청회 실시확대 역할	37	4.9	91.8
사회복지전문가에게 체계적인 교육훈련 역할	57	6.8	98.5
기 타	11	1.5	100.0
합 계	752	100.0	

5) 공동모금회의 사업방향성 및 활성화 방안

조사응답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시설의 지원은 지역사회통합화에 중점지원 해야한다가 87.5%로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사회문제해결 프로그램, 서비스의 조정과 중점사업지원은 88.6%가 그렇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역공동모금회가 제3세계의 기아, 북한의 식량난 등의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57.9%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아니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도 35.6%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와 삶의 질에 대한 지원확대의 경우 79.8%가 긍정적이며, 지역봉사단체가 프로그램을 신청해올 때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대답한 경우도 74.4%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공동모금회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조사응답자의 47.3%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제고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웃돕기에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제공이 21.8%, 모금주체기관에서 시·도민들의 참여 동기유발이 20.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아직도 우리사회는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과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 기부문화활동

1) 공동모금회의 후원 및 기부활동의 인지도

공동모금회의 후원 및 기부활동에 대한 인지를 살펴보면 “후원이나 기부활동을 잘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경우가 39.7%과 매우 그렇다 5.2%가 응답하여 전체 44.9%를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아니다의 경우가 50.5%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그렇치 않은걸로 나타났다. 후원, 기부활동에 대한 적극성에 대해서도 그렇다의 경우는 겨우 28.5%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63.7%를 차지하고 있어 기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웃돕기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3%이상이 절대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서도 77.5% 이상이 인지하고 있다.

한편, 후원이나 기부활동 금액 중에서 수입의 1%의 의무부담성에 대해서는 70.0%가 그렇다고 긍정적 대답을 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경우도 31.3%를 차지하고 있어 의무부담성에는 아직 시기 상조인 점을 들 수 있다.

후원, 기부금에 대한 사용내역의 투명성은 66.3%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아니다의 경우도 29.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이 밖에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공개성은 전체 응답자의 94.0%가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개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8> 후원 및 기부활동의 인지도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무응답	합 계
후원, 기부활동 (경험여부)	40 (5.2)	304 (39.7)	386 (50.5)	30 (3.9)	5 (0.7)	756 (100.0)
후원, 기부활동 (적극성)	23 (3.0)	203 (26.5)	487 (63.7)	42 (5.5)	10 (0.3)	756 (100.0)
이웃돕기운동 (필요성)	211 (27.6)	487 (63.7)	54 (7.1)	13 (0.7)	8 (1.0)	756 (100.0)
후원, 기부활동 (사용내역의 투명성)	154 (20.1)	439 (57.4)	148 (19.3)	30 (1.7)	11 (1.4)	756 (100.0)
후원, 기부활동 (수입1%의무부담성)	106 (13.9)	383 (50.1)	239 (31.2)	30 (3.9)	7 (0.9)	756 (100.0)
후원, 기부금 (사용내역의 투명성)	133 (17.4)	374 (48.9)	222 (29.0)	23 (3.0)	13 (1.7)	756 (100.0)
후원, 기부금 (공개성)	357 (46.7)	362 (47.3)	34 (4.4)	5 (0.7)	7 (0.9)	756 (100.0)

이 밖에 연령별에 따른 기부활동 참여경험을 살펴보면 참여한 적이 있다는 경우가 88%이고, 없다는 경우가 19.2%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참여인 경우에 40대가 8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30대가 84.5%, 50대 이상이 81.0%, 20대 이하가 66.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대 이하가 33.3%로 가장 높고 50대가 19.0%, 30대가 15.5% 순으로 30대 이하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98.8%를 차지하고 있어 20대와 30대의 적극적인 참여방법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직업별에 따라 기부참여를 살펴보면 농어민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이 36.2%, 전문직이 15.1% 순으로 나타나 개인차원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 우리사회에 기부활동의 자율성이 높지 않음을 <표 10>에서 볼 수 있다.

<표 9> 기부문화의 참여경험

구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	합계
있다	114(66.7)	223(84.5)	184(87.6)	94(81.0)	615(80.8)
없다	57(33.3)	41(25.5)	26(12.4)	22(19.0)	146(19.2)
합계	171(100.0)	264(100.0)	210(100.0)	116(100.0)	761(100.0)

$\chi^2 = 30.626$ $P = 0.000$

<표 10> 직업별 기부참여

구분	개인	회사·단체	계
전문직	86(75.4)	28(24.6)	114(15.1)
공무원	112(41.0)	161(59.0)	273(36.2)
농어민등	249(67.8)	118(32.2)	367(48.7)
합계	447(59.3)	307(40.7)	754(100.0)

$\chi^2 = 61.178$ $P = 0.000$

2) 기부하는 동기 및 미활성화 이유

조사응답자의 기부동기에 대한 질문에 1순위에서는 62.6%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이타주의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부, 자원봉사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9.85%, 종교적 신념이나 헌신이 6.5%,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이행이 5.35%, 사회에의 환원으로 얻는 이익이 4.6%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기부, 자원봉사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이행이 17.9%, 종교적 신념이나 헌신이 12.4%, 사회에 환원으

로 얻는 이득이 10.7%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응답자 중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의 부족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부에 참여할만한 동기 유발을 못하였기 때문이 20.7%,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과 기부참여기회가 별로 없어서가 각기 12.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부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기부동기

구 분	빈 도	1순위	빈 도	2순위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이타주의 정신	474	62.6	81	10.8
기부, 자원봉사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74	9.8	136	18.2
종교적 신념이나 헌신	49	6.5	93	12.4
사회에의 환원으로 얻는 이득	35	4.6	80	10.7
친구, 친지의 권유	13	1.7	35	4.7
자신, 가족이 혜택 받는 기관 지원 유지	31	4.1	62	8.3
봉사하기 위해	10	1.3	49	6.6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 이행	40	5.3	134	17.9
세금감면 혜택	3	0.4	18	2.4
고용주, 책임자의 권유	28	3.7	59	7.9
합 계	757	100.0	747	100.0

<표 12>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

구 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	계
이웃에 대한 관심과참여의식이 부족하기 때문	77 (45.0)	152 (58.5)	109 (52.4)	70 (60.9)	408 (54.1)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	22 (12.9)	24 (9.2)	26 (12.4)	22 (19.0)	146 (19.2)
이웃돕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별로 없다.	31 (18.1)	34 (13.1)	18 (8.7)	12 (10.4)	95 (12.6)
사회복지기관에서 시민들이 참여할만한 동기를 유발하지 못했기 때문	41 (24.0)	50 (19.2)	52 (25.0)	13 (11.3)	156 (20.7)
없 다	171 (100.0)	260 (100.0)	208 (100.0)	115 (100.0)	754 (100.0)

$\chi^2=24.462$ $P=0.004$

연령별에 따라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서는 20~50대 이상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기관에 시민들이 참여할만한 동기를 유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자선·기부금 사용희망 분야

조사응답자 조사결과를 보면 1순위의 경우 시설아동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년소녀가장이 18.6%, 불우이웃 생계비 지원이 16.1%, 결식아동이 15.7%, 노인 13.9%, 장애인 10.3% 순으로 조사되었다. 2순위에서는 결식아동이 29.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18.0%, 북한동포돕기 14.8%, 소년소녀가장이 12.8%, 불우이웃생계비지원이 12.1%, 시설아동 7.3%, 시민·사회단체 지원이 4.5%순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에서는 시설아동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별 기부금 사용희망분야를 살펴보면 전문직에 있어서는 장애인 21.7%, 아동 20.0%, 어려운 이웃 19.1%, 노인 15.7% 순으로 나타나며, 공무원인 경우는 아동 23.8%, 소년소녀가장 20.9%, 어려운 이웃 18.3%, 결식아동이 17.9% 순이며, 농어민의 경우는 아동 23.9%, 소년소녀가장 20.9%, 노인, 19.0%, 결식아동 14.5% 순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3> 자선기부금 사용희망분야

구분	빈도	1순위	빈도	2순위
시설(보육원)아동	178	23.3	72	7.3
결식아동	120	15.7	188	24.9
소년소녀가장	142	18.6	97	12.8
장애인	79	10.3	136	18.0
노인	106	13.9	112	14.8
북한동포 돕기	5	0.7	36	4.8
불우이웃 생계비지원	123	16.1	91	12.1
시민·사회단체 지원	4	0.5	34	4.5
기타	7	0.9	6	0.8
무응답	1	0.1	-	-
합계	765	100.0	755	100.0

<표 14> 직업별 기부금 사용희망분야

구 분	아동	결식 아동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노인	북한동포 돕기	어려운 이웃	사회 단체	기타	계
전문직	23 (20.0)	15 (13.0)	7 (6.1)	25 (21.7)	18 (15.7)	1 (0.9)	22 (19.1)	3 (2.6)	1 (0.9)	115
공무원	65 (23.8)	49 (17.9)	57 (20.9)	17 (6.2)	33 (12.1)	1 (0.9)	50 (18.3)	-	1 (0.4)	273
농어민	89 (23.9)	54 (14.5)	78 (54.9)	36 (9.7)	56 (15.0)	3 (0.8)	51 (13.7)	1 (0.3)	1 (1.3)	373
합 계	177 (23.3)	120 (15.8)	142 (18.7)	78 (10.2)	105 (13.8)	123 (0.7)	123 (16.2)	4 (0.5)	7 (0.9)	761

$\chi^2=50.258$ P=0.000

4. 자원봉사활동

1)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여부 및 참여 횟수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있다는 경우가 65.1%이고, 없다는 경우가 34.9%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실천현장의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횟수를 보면 연 1회 정도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월 1~2회 이상이 16.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자원봉사 활동영역과 참여 동기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사회복지시설(기관)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24.9%, 어려운 개인(가정) 19.6%, 종교기관 11.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다면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영역은 사회복지시설(기관)이 중심적인 분야이고 다음으로 지역사회를 찾을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자원봉사 참여동기를 살펴보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28.2%를 가장 높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명감 때문에 22.7%,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17.6% 그리고 자아실현의 계기가 13.9%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종교적 사명감이 8.2%, 여가시간 활용이 6.7%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자원봉사참여 동기

구 분	빈 도	백 분 율	누적백분율
여가시간 활용	34	6.7	6.7
종교적 사명감	42	8.2	14.9
자아실현의 계기	71	13.9	28.8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144	28.2	56.9
다른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명감	166	22.7	79.6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90	17.6	97.3
취업, 승진, 진학등에 이롭기 때문	14	2.7	100.0
합 계	495	100.0	

3)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및 참여계획

응답자들의 분석을 보면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기회나 정보가 없어서가 26.7%, 관심이 없어서 2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구 분	빈 도	백 분 율	누적백분율
시간이 없어서	113	36.3	36.3
성격상 맞지 않아서	21	6.8	43.1
관심이 없어서	71	22.8	65.9
기회나 정보가 없어서	83	26.7	92.6
봉사를 하고 싶은 시설·기관이 없어서	17	5.5	98.1
이미 돈이나 물품을 내고 있어서	6	1.9	100.0
합 계	311	100.0	

또한 응답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계획을 살펴보았더니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76.9% 이상으로 나타나고, 생각해 보겠다는 응답도 18.6%로 나타났다.

이것을 본다면 지역사회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각종의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아가고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모금분야

1) 정기적인 후원이나 기부의 필요성

조사대상자의 모금분야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치적인 후원이나 기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 71.4%, 매우그렇다 19.8%로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 91.2%를 나타내고 있어 정기적인 후원이나 기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월평균 적정모금액수와 모금참여의 차원

조사대상자들에게 후원이나 기부를 한다면 월평균 얼마정도의 액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5천~1만원이 29.7% 가장 높게 나타났고, 2~3천원이 23.8%, 3~5천원 18.6%, 1~3만원이 14.6%, 1천원 이내 11.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가장 효과적인 모금방법

조사대상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모금방법을 살펴보았더니 1순위에서는 언론기관모금(방송, 신문사)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ARS모금이 21.7%, 월급공제모금 11.1%, 개별적인 모금 5.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순위에서는 ARS모금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개별적인 모금이 17.0%, 월급공제모금 13.7%, 은행지로모금 12.1%, 언론기관모금(방송, 신문사) 11.9%, 특별행사 8.9%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에서는 언론기관모금(방송, 신문사)이 52.0%로 모금의 절반이상을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2순위에서는 ARS모금이 28.0%를 차지하고 있어 점차 이의 모금방법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가장 효과적인 모금방법

구분	빈도	1 순위	빈도	1 순위
언론기관(방송, 신문사)	396	51.9	90	11.9
ARS	166	21.8	209	27.7
월급공제	85	11.1	103	13.7
가두모금	10	1.3	20	2.7
특별행사(이벤트사업)	26	3.4	67	8.9
은행지로 모금	30	3.9	91	12.1
개별모금	42	5.5	28	17.0
인터넷, PC통신 모금	8	1.0	46	6.1
합계	763	100.0	754	100.0

6. 배분분야

1) 배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배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배분형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프로그램배분형 29.1%, 기관배분형 25.6%, 혼합형 14.1%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본다면 무엇보다도 배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수문제나 지역증진에 대한 배분으로 균형적인 지역안배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18> 배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구 분	빈 도	백 분 율	누적백분율
기관배분형(시설, 기관대상)	194	25.6	25.6
프로그램배분형(문제해결, 프로그램수행)	221	29.1	54.7
지역배분형(지역특수문제, 지역증진)	237	31.2	85.9
혼 합 형(프로그램+기관배분)	107	14.1	100.0
합 계	759	100.0	

한편 직업별에 따른 배분의 중요기준을 살펴보면 전문직의 경우는 프로그램배분형이 34.8%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혼합형이 27.8%, 기관배분형이 19.1%, 지역배분형이 18.3%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는 지역배분형이 34.2%, 프로그램배분형이 29.8%, 기관배분형이 23.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어민의 경우는 지역배분형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기관 배분형이 29.3%, 프로그램형 26.6%, 혼합형 10.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전문직의 경우는 프로그램 배분형, 혼합형, 기관배분형, 지역배분의 기준이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지역배분형, 프로그램배분형의 순으로 나타나 배분기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9> 직업별 중요한 배분기준

구 분	기 관 배분형	프 로 그 램 배분형	지 역 배분형	혼 합형	계
전 문 직	22(19.1)	40(34.8)	21(27.8)	32(27.8)	115(15.2)
공 무 원	63(23.2)	81(29.8)	35(34.2)	35(12.9)	272(36.0)
농 어 민	108(29.3)	98(26.6)	123(33.3)	40(10.8)	369(48.8)
합 계	193(25.5)	219(29.0)	219(31.3)	107(14.2)	756(100.0)

$\chi^2=32.424$ P=0.000

2)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인구대상

조사대상자들에게 공동모금의 성금을 배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인구 대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동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이 27.15%, 장애인 25.9%, 청소년 11.3%, 여성 3.2%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지원해야 하는 인구대상은 아동이므로 아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배분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로 구별해 볼 수 있다.

3) 이웃돕기 성금이 지원되어야 할 분야

조사응답자들의 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지원되어야 할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응답자 중에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계비 등 긴급구호비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기획 프로그램이 30.4%, 사회복지시설이 신청한 프로젝트가 21.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여의 경우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계비 등 긴급구호가 각각 45.1%와 40.5%로 높게 나타나고,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기획 프로그램은 각각 26.2%와 35.4%로 나타나고 있어 지원되어야 할 분야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4) 지정기탁 배분방법

수탁자를 미리 정해놓고 성금을 기탁하는 「지정기탁방법」에 대해서 이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는 질문에 전체조사응답자의 43.4%가 지정기탁이라 할지라도 지역 및 계층을 고려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탁자의 뜻대로 배분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38.7%, 기탁자의 뜻만 존중하면 어디에 지원해도 상관없다가 11.3%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지정기탁이라 할지라도 지역이나 계층을 고려한 심사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0> 지정기탁 배분방법

구분	남	여	계
기탁자의 뜻대로 배분지원	179(43.3)	114(33.0)	293(38.7)
기탁자의 뜻만 존중하면 되고 어디에 지원해도 상관없다.	53(12.8)	33(9.6)	86(11.3)
지정기탁이라 할지라도 지역 및 계층을 고려한 심사과정	154(37.3)	175(50.7)	329(43.4)
모르겠다.	27(6.5)	23(6.7)	50(6.6)
합계	413(100.0)	345(100.0)	758(100.0)

$\chi^2=14.750$ $P=0.000$

5) 미신고 시설 지원 여부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여부를 물어보았더니 가능한 지원해야 한다가 36.8%, 적극 지원해야 한다가 23.1%, 지원해서는 안된다가 9.3%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59.9% 이상이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점차 미신고 시설에 대한 지원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6) 시민단체의 지원에 대한 여부

최근 이웃돕기성금을 시민단체(NGO, NPO)등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들 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지역사회복지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발전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원을 요청할 시에는 배분해야 한다가 25.3%,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원해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다가 16.5%, 지원해서는 안된다가 13.4%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시민단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의 성격이 크게 좌우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점차 증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동모금회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응답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선모금 후배분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모금 배분이 동시예가 24.4%, 선배분 후모금 8.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보면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은 선모금 후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1> 가장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 분	빈 도	백 분 율	누적백분율
선배분, 후모금	66	8.7	8.7
선모금, 후배분	418	54.9	63.5
모금·배분 동시	186	24.4	87.9
잘 모르겠다	92	12.1	100.0
합 계	760	100.0	

7. 평가분야

1) 배분사업비 평가

조사대상자에 의하면 배분사업비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가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평가는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평가는 시간낭비일 뿐이다가 28.7%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응답자 중 90.2%가 평가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 공동모금회의 평가활동

구분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68	27.5	27.5
큰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6	42.9	70.4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평가를 실시하는 자체가 의심스럽다	33	13.4	83.8
평가는 없어야 한다	36	14.6	98.4
잘 모르겠다	4	1.6	100.0
합계	7247	100.0	

2) 프로포절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여부

이웃돕기 성금 지원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에 평가를 하고 있다가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중요성을 감안해 필요시에만 꼭 실시하고 있다가 21.0%,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다가 8.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평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경우도 8.3%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34.0%에 달해 프로포절에 대한 평가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공동모금회 3년간 활동평가

조사응답자들로 하여금 공동모금회 출범 3년간의 활동평가에 대해 직업별로 모금, 배분, 기획홍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52.1%로 만족을 나타냈고, 공무원은 25.1%가 만족을, 보통이다가 65.7%. 그리고 농어민 28.8%가 만족을, 보통이다가 62.8%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3> 공동모금회 3년간 활동평가

구 분	매우만족	만 족	보 통	실 망	매우실망	계
전 문 직	65(13.0)	45(39.1)	50(43.5)	3(2.6)	2(1.7)	115(15.3)
공 무 원	7(2.6)	61(22.5)	178(65.7)	18(6.6)	18(6.6)	271(35.9)
농 어 민	18(4.9)	88(23.9)	231(62.8)	20(5.4)	2(5.4)	368(48.8)
합 계	40(5.3)	194(25.7)	459(60.9)	41(5.4)	11(3.0)	754(100.0)

$\chi^2=17.023$ $P=0.000$

4)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가장 바람직한 평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평가가 39.3%고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기획홍보, 모금, 배분 분과 실행위원의 폭넓은 평가가 29.3%, 자체평가가 13.1%, 시도별 교차평가 9.9%, 배분 분과 실행위원과 중심의 평가가 8.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은 역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표 24>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

구 분	빈 도	백 분 율	누적백분율
시·도별 교차평가	74	9.9	9.9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평가	294	39.3	49.2
자 체 평 가	98	13.1	62.3
배분분과 실행위원 중심의 평가	63	8.4	70.7
기획·홍보·모금·배분·분리 실행위원회의 폭넓은 평가	219	29.3	100.0
합 계	748	100.0	

V.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1) 공동모금회에 대한 인식

공동모금회의 자율성,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보면 자율성은 82.3%가 긍정적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15.9%로 나타났으며, 독립성은 69.3%가 긍정적이고, 아니다의 경우는 26.9%이며, 공정성은 74.3%가 긍정적이고, 아니다의 경우는 21.2%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율성,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이 각각 82.3%, 69.3% 그리고 74.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이웃돕기에 대한 책임성은 이웃과 지역사회가 38.6%로 가장 높고, 개인과 국가가 35.3%, 국가가 11.4%, 가족과 친척이 10.4%, 개인이 4.1%순으로 나타나 지역공동모금회 사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동모금회 신청사업 내용은 생계지원분야가 38.8% 가장 높고, 사회통합프로그램 17.0%, 시설·기능보강사업 13.8%, 교육훈련프로그램 8.0%, 시설운영지원사업 7.8%로 생계지원사업분야가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모금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는 생계지원확대 역할이 27.6%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역할 23.7%,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재정지원역할이 14.0%로 나타나 이 분야 역시 생계지원 확대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공동모금회의 사업방향성과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지역사회통합화에 87.5%,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해결프로그램과 조정 및 중점사업지원에 88.6%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응답자의 47.3%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 고취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기부문화활동

공동모금회의 후원 및 기부활동의 인지도를 보면 조사응답자의 50.5%가 기부활동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적 분위기조성이 요구되며, 이웃돕기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3%이상이 인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서도 77.5%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사용내역의 투명성은 66.3%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아니다의 경우는 29.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공개성 역시 94.0%가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사응답자의 기부동기에 대해서는 1순위가 62.6%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이타주의 정신으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9.8%, 종교적 신념이나 헌신이 6.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순위에서는 개인적 만족을 위해서가 18.2%, 그 다음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이행이 17.9%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문화의 미활성화 이유로서는 전체응답자의 54.1%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의 부족이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참여할만한 동기유발을 못하기 때문이 20.7%로 나타나, 기부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문화활동의 참여경로를 살펴보면 TV, 라디오를 통해서가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종교기관을 통해서가 9.9%순으로 나타나 영상매체를 통한 경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선기부금사용의 희망분야를 보면 1순위의 경우는 시설(모육원)아동이 23.3% 가장 높고, 소년소녀가장이 18.6%, 불우이웃 생계비지원이 16.1%, 결식아동이 15.7%, 노인 13.9%, 장애인 10.3%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분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여부에 있어서는 참여한 경우가 65.1%로 나타나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34.9%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36.3%가 사회복지시설(기관)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24.9% 개인 19.6%, 종교기관 11.8%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참여 동기를 보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2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명감 때문에 22.7%,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17.6%, 자아실현의 계기가 13.9%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서는 시간이 없어서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기회나 정보가 없어서 16.7%, 관심이 없어서 22.8%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응답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계획을 살펴보았더니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76.9%이상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프로그램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4) 모금분야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후원이나 기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2%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 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월평균 적정 모금액수는 5천~1만원이 29.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3천원이 23.8%, 3~5천원이 18.6%순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월 1만원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효과적인 모금방법은 1순위에서는 언론기관(방송, 신문사)이 51.9%로 가장 높고, ARS모금이 21.7%, 월급공제모금이 11.1%, 개별모금이 5.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순위에서는 ARS모금이 2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서는 개별모금이 17.0%, 월급공제모금이 13.7%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가장 효과적인 모금방법은 언론기관(방송, 신문사)이 52.0%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ARS모금이 28.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배분분야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배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지역배분형이 3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서는 프로그램배분형이 29.1%, 기관배분형이 25.6%, 혼합형이 14.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인구대상으로는 아동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이 27.1%, 장애인 25.9%, 청소년 11.3%, 여성 3.2%순으로 나타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순으로 지원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웃돕기성금이 지원되어야 할 분야에 있어서는 긴급구호비가 4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기획 프로그램이 30.4%, 프로포절이 21.2%순으로 나타나 당연히 긴급구호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정기탁배분에 있어서는 전체응답자의 43.4%가 지역 및 계층을 고려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43.4%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기탁자의 뜻대로 배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38.7%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 지정기탁이라 할지라도 지역이나 계층을 고려한 심사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응답자들에 의한 시민단체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성격이 범주를 벗어나면 지원하지 않는다가 38.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지원을 요청할 시 배분해야 한다가 25.3%, 지원이 아직은 시기상조다가 16.5%순으로 나타나 시민단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율적 배분 및 운영시스템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서는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가 30.7%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서는 지역안배철저가 29.2%, 사회복지이용시설 중심이 24.5% , 신고·미신고여부가 4.2%순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수용·이용)중심이 전체 55.2%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 배분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모금회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으로서는 응답자의 54.9%가 선모금·후분배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모금·배분이 동시에 24.4%, 선배분·후모금이 8.7%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으로 보면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은 선모금·후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

6) 평가분야

배분사업비에 대한 평가로서는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우가 61.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서는 형식적인 평가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가 28.7%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응답자의 90.2%가 평가의 필요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 제언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출발하여 3여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지회)공동모금회가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회의 성격을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재설립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의 중앙공동모금회의 체제로 존속해 각 16개 지역이 지회로 이어진다면 중앙공동모금회는 각 지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하고, 지회직원들의 신분보장과 이에 맞는 조직 및 기구의 조직과 인원을 조정하여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

둘째, 대정부관계관의 측면에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와 지회모금회와의 민관 동반자 관계를 유지시켜 나아가야 하고 상호밀접한 공조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특

히 각 지역간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에 맞는 전달체제를 확립하여 지회를 중심으로 시·군 네트워크 형성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공동모금회는 무엇보다도 기획 및 홍보분야 그리고 모금분야를 비롯한 배분사업분야 그리고 평가분야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성과 효율성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분야별 위원회 구성을 사회복지 전문가를 비롯해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기업, 종교, 학교 및 지역유지 등 각종 인적자원을 골고루 참여시켜 투명성과 책임성이 있는 신뢰있는 위원회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회공동모금회는 프로포절사업에 있어서 공개성과 신뢰성이 있도록 심사기준과 사업내용을 철저히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프로포절은 언론 및 방송을 통해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한다. 뿐만아니라 미선정된 프로포절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심사내용과 기준을 발표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작성해 열람한다.

다섯째, 지회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기획 및 홍보에서 모금, 배분,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호 꾸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각 시설이나 민간단체에서 프로포절 신청에 대한 각종 세미나나 이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숙지시키고 이를 작성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회의 공동모금회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된 지 이제 몇 해를 보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매년 꾸준한 공동모금액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각 지역민들로 하여금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이해가 있기 때문이며 결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급진전한 공동모금회의 발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민의 협조체제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복지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모(2001),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출판부
- 최일섭(2001),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이론과 실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김형식(1999), 「사회복지체계론」, 서울 나눔의 집
- 이영철(2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활성화 방안”, 전남공동모금회
(2002), 「지역복지실천론」, 서울 양서원
(2001), 「사회복지 행정론」, 서울 동인 출판사
(2000), 「사회복지론」, 서울 양서원
- 류기형(2000), “공동모금의 이해와 시민참여확대방안”, 부산공동모금회세미나2000
(1991), “지역공동모금회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범수(2000), 「지역사회복지론」, 홍익재
- 강철희(2000), “한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사, 구조와 기능”, 《한일지역복지비교연구》, 나남
- 강영신(1998),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대구사회복지협의회
- 정무성역(2000),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과 관리」, 서울 나눔의 집
- 한동우(2000), “주요국공동모금조직의 모금 및 배분활동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전라남도(1998), 이웃돕기성금 운영계획, 사회복지과(1996-1998)
- 이웃돕기 추진협의회 업무보고, 사회복지과 1998
-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0), 업무보고 1998-2000
2000 이웃돕기 모금운동 추진대회 자료집
2001 업무보고
2001희망2001 이웃돕기 캠페인 추진계획
2001 2000평가 결과보고서
1999 프로포절 평가결과
2000 프로포절 평가결과
2001 배분심사결과
2001 배분심사기준
2001 배분분과 실행위원회 업무보고
2001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2001 집중모금기간 모금현황, 업무보고
2001 홈페이지